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MIDDLE EAST

중동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17~08/23

1. 호르무즈 해협 긴장에 따른 중동 항로 차질과 대체 노선 모색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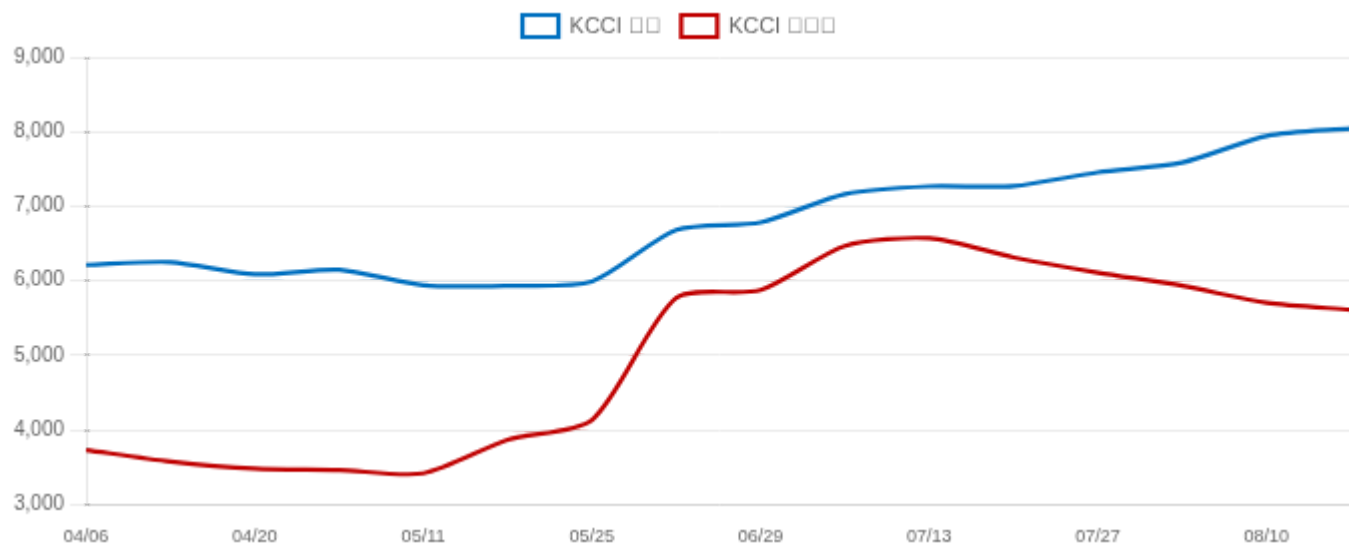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중동 권역을 관통하는 핵심 흐름은 호르무즈 해협의 간헐적 봉쇄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안정성 심화임. 주요 선사들의 이탈과 회항이 반복되면서 걸프만 내 체선이 증가하고 선박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긴장은 중동 항로의 불확실성을 높여 운임 상승과 물류 지연을 초래할 전망이다. 또한 대체 노선 모색이 가속화되면서 아라비아 반도 우회 항로나 육상 운송 연계 등 공급망 재편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는 선사들의 운항 스케줄 조정과 화주들의 재고 확보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중동	8,044 \$/FEU	08/17	+1.3%	+10.7%
KCCI 지중해	5,611 \$/FEU	08/17	-1.6%	-11.1%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8/17

호르무즈 해협 긴장에 따른 중동 항로 차질과 대체 노선 모색

호르무즈 해협의 간헐적 봉쇄로 중동 항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사들이 이탈과 회항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걸프만 내 체선과 선박 공급 차질을 유발하고 있음.

4월 30일 기준 CMA CGM 소속 선박 4척이 페르시아만 이탈을 시도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회항한 것으로 확인됨. Linerlytica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해협 재개방 발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통과를 다시 차단했으며, 당시 이탈을 시도하던 12척 선단 중 8척만 해협을 통과함.

해당 선단은 1030TEU급 BHAGYA LAXMI를 선두로 1만5254TEU급 CMA CGM EVERGLADE, 2592TEU급 CMA CGM MANAUS, 1만5254TEU급 CMA CGM GALAPAGOS, 3534TEU급 CMA CGM DIAMOND 등 CMA CGM 선박 4척이 포함됨. 이들 4척은 재봉쇄로 회항했고, 나머지 8척은 통과함.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발 원유·LNG와 컨테이너선 통항의 핵심 길목으로, 이란의 반복적인 봉쇄는 걸프만 내 대기 선박 증가와 터미널 체선, 피더 네트워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업계에서는 중동발 컨테이너선 운항 스케줄과 인도양~중동 구간 선박 공급에 단기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음.

선사들은 우회 여부 판단에 있어 더욱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큼. 이란의 정책 변화가 수시로 반복되면서 대체 노선 모색이 제한적인 상황이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가 중동발 공급망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CMA CGM 소속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 이탈 시도 중 회항함.
- 이탈 시도 선단 12척 중 8척만 해협 통과에 성공함.
- 회항한 선박들은 1만5254TEU급 2척, 2592TEU급 1척, 3534TEU급 1척 등임.
- 이란은 해협 재개방 발표 24시간 내 통과를 다시 차단함.
- 걸프만 내 대기 선박 증가 시 터미널 체선과 피더 네트워크 지연 가능성이 제기됨.

전망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재개방이 반복되면서 당분간 중동 항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선사들은 위험 회피를 위해 우회 항로를 적극 검토하겠지만, 대체 노선의 운항 거리·시간 증가로 운임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시사점

화주 — 중동발 화물의 선적·도착 지연 가능성이 높아져 재고 관리와 대체 운송 수단 확보가 필요함.

포워더 — 걸프만 내 피더 네트워크 혼잡으로 환적 화물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고객사와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됨.

항만·선사 — 페르시아만 내 항만의 체선이 심화될 수 있어 선석 운영 효율화와 우회 항로에 따른 선박 재배치가 필요함.